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1)(2) 천변 풍경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천변 풍경」은 특별한 사건 없이 **창수**가 **서울에 와서 보고 겪는 일만** 쪽 나열되는 것 같아서,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정확하게 봤어!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란다. 「천변 풍경」은 **1930년대 서울 청계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세대 소설이야. 그래서 큰 사건의 흐름보다는 당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에 주목해야 한단다.



아, 어떻게 보여 주는지가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 소설은 **섬표가 너무 많고 문장이 길어서** 정신이 없고, 장면이 계속 빠르게 바뀌어서 내용을 따라가기가 이해가 안 돼요.

바로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서술 방식**’이란다! 작가는 마치 영화감독처럼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을 사용하여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창수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 눈에 비친 풍경을 객관적으로 쪽 보여 주는 거지. 이를 통해 독자는 **과거의 도시 풍경이 눈앞에 실감 나게 재현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창수가 본 여러 장면과 대상을 서술할 때 **섬표를 자주 활용하여 다양한 행위와 장면을 연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또한 **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대상을 서술하면서 독자들이 호흡을 끊어 읽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카메라의 눈’ 기법이군요! 그럼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만 하는 거라면, 창수의 심리가 변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처음에는 **서울에 대해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 심리 변화도 공부해야 할지 헷갈려요.

물론 중요하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창수의 심리 변화'란다. 시골 소년 창수가 서울에 와서 겪는 경험에 따라 심리가 '동경과 기대'에서 '모욕감, 두려움, 외로움'으로 변하는 과정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돼. 특히 '담배 심부름' 사건이 이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



아! 세태 소설, 그리고 '카메라의 눈' 기법과 관련된 형식적 특징과 '창수의 심리 변화'와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공부해야겠네요. 이제야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무아카데미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1)(2) 천변 풍경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 지문 분석

#### 제3절 시골서 온 아이

**소년**(창수. 제3절의 주인공. 교과서 수록 부분은 창수의 시점에서 관찰한 내용과 내면을 상세하게 서술함.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려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와 '작품 속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인물을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은,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해 마지않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다.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펀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골 '가평'**(소년이 떠나온 고향 마을)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도시에만 있는 신기하고 다양한 문물)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 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지금의 동묘) 앞 자동차부에서 차를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한다. ]([ ]: **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대상을 서술함.**)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새로운 문물에 익숙해져 무감한 도시인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서울 생활에 대한 동경. 문명의 이기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도시인들에 대한 부러움. **소년(창수)의 심리**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기데, 전차 뭣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전차 대신 다른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김. 도시 문물에 대한 호기심) ]([ ]: **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대상을 서술함. - 독자들이 호흡을 끊어 읽어 주목할 수 있게 함.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섬표의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시골에서는 장이 서야 복적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 ]: **창수의 눈에 비친 서울 거리의 모습을 관찰 위주로 서술함. 이 작품은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린 세태 소설임. 세태 소설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어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태평소. 나팔 모양으로 된 우리나라의 관악기의 일종) 소리에, ]([ ]: **거리에서 공연하는 악단의 광대와 서커스 행렬의 모습)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직접 제시'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 잃어버릴 뻔하다가 찾는다고, 찾아내고 한 소년은, 종로 네거리 광

대한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 “애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화신상**(화신 백화점. 1930년대 박흥식이 서울에 설립한 백화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신상이란 데야.”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 ]: 창수의 순박함 - 문이 있는 건물은 모두 ‘집’으로 생각하고, 광대한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 그는 겨우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여야 잘될 수 있다는 속담)의 속담을 그대로 좇아,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서도,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아버지가 어린 창수를 서울로 데리고 온 목적)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성’**(‘서울’의 전 이름)으로 올라온 것이다. ]([ ]: 아버지는 ‘한성’이 시골과 달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라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한성’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믿음.)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리지 못한 화신 상회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니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으나,**(아버지도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 **그는,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사무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자기의 모든 거조가, 그렇게도 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자식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김. 아버지로서 자식의 일에 신중을 기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부성애가 드러남. 아버지가 **소년(창수)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들에 대해 묻는 문제에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들’에게 빨리 종로로 갈 것을 재촉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창수와 창수 아버지의 상경과 소년의 순박함.

**청계천 변**(작품 전체의 공간적 배경), 한약국 주인 방에, 가평서 올라온 부자는 주인 영감과 마주 대하여 앉았다.

“애가 **자제**(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이니까?”

“네…… 애, 인사 여쭙라.”

[중략 부분 줄거리] 창수는 나이를 묻는 주인 영감의 물음에 대신 답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느낀다.

“문간에 나가 구경이라두 허렴. 어디 먼 데는 가지 말구…….”

[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무슨 은근한 이야기**(서울에서의 소년의 거취와 일자리 부탁)가 있으려는지, 새로이들 **궂련**(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을 피워 물었다. ]([ ]: 서울의 초점이 창수에게 맞춰지고 있어서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음.)

▶ 창수 아버지가 창수를 서울로 데리고 와 한약국에 맡김.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보이는 모든 것이 생소했기 때문) 이곳은 가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서울 생활은 소년(창수)이 소망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서울에 대한 인물의 느낌이 단적으로 드러남.) 아무리 시골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이라든,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우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놀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아직 ‘권투’라는 운동을 모르는 상태임. - 창수가 시골에서 온 아이임을 드러냄.) ]([ ]: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풍경을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으로 서술함. ‘카메라의 눈’ 기법은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등장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임. 이 기법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과거의 도시 풍경이 눈앞에 실감 나게 재현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음. **카메라의 눈 기법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 재미스러웠다.

[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잘난 사람들로 보임. **창수에 대해 묻는 문제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시골에서 온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청계천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며, 종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 ]: **이 부분에 나타난 소년(창수)의 심리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의 눈에 비친 대상과 그에 대한 소년의 반응을 묻는 문제에 ‘깍정이 떼들: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깍정이 떼들은 거지지만 소년(창수)이 동경해 왔던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년(창수)의 눈에 그들이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시골에서는 한 곳에서 비슷한 풍경만을 보아야 했으나, 서울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창수에 대해 묻는 문제에 ‘시골 출신인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 풍경’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고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도,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

[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수길이는 이미 ‘화신상’에서 승강기를 타 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 ]: 서울 생활에 대한 창수의 기대감이 드러남.)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 서울 생활에 대한 창수의 기대와 감격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짝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격지심을 느낌.)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자전거 종소리의 기능을 묻는 문제에 ‘놀림감이 된 ‘소년’이 느끼는 감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자전거 종소리에 익숙했기 때문)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자신을 비웃는 듯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낌. **소년(창수)에 대해 묻는 문제에 ‘서울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부끄러움과 모욕을 느꼈다.’라는 옳은 선**

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긴 문장으로 인물이 겪은 일을 생생하게 표현함.)

그러나 저를 비롯한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재봉. 이발소에서 일하는 소년으로, 천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는 역할을 함.)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심리적 위축 상태. 어수룩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겉**(서울에 대한 창수의 심리 변화(기대→겉). 자신을 시골 아이라 놀리는 아이들을 통해 서울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제야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 **소년(창수)의 경험과 심리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부쩍 나며, [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도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서울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짐.) 그러면 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 서울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는 창수)

▶ 서울 생활에 대한 창수의 두려움

[ 소년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기에 대하여, 눈곱만 한 자신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룻밤이라 같이 묶어 주는 일 없이, **그대로 무자비하게도 자기의 불일만을 보러**,(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영등포라나 어디라나로 떠나 버렸으므로, 어린 창수는, 대체, 혼자서, 이제, 어찌하여야 좋을지, **끝없는 불안**(서울에 혼자 남게 된 창수의 심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 ]: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긴 문장으로 인물의 심란하고 불안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그야, 아버지는, 내일 아침 가평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한약국을 들르마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까짓 것이 그의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 얼마 있다, **주인 영감이 ‘피죤’ 한 갑 사오라고 한 장의 일 원 지폐를 내어 주었을 때**,(새로운 사건의 시작. **담배 심부름의 서사적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담배 가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모르는 창수는 고만한 심부름에도 애가 쓰였다.

돈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에다 대고, 주인 영감은 **생각난 듯이**(창수가 서울에 처음 와서 동네 지리를 모른다는 사실이 생각남.) 한마디 하였다.

“너, 담배 파는 데, 아니?”

“네.”

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얼굴을 붉히며, 천변에 나와, 대체, 어디로 발길을 향해야 옳을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을 때,

[ “너, 심부름 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그저 앉아 있는, 아까 그 아이가 말을 또 걸어, 그래,

“응”

하고 대답하니까,

“뭐.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씨는 착한 아이인 듯싶어,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 ]([ ]: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부분 알고 있는 이발소 아이 → 제2절의 주인공이기도 한 ‘재봉이’는 이발소의 사환으로, 작품 전반에서 천변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 시선에서 관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이발소 아이’의 역할과 그에 대한 소년(창수)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일러 주는 그 말이, 이 경우의 창수에게는 펍이나 고마웠다.

창수는 한달음에 다리 모퉁이 반찬 가게로 뛰어갔다.

▶ 주인 영감의 첫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가는 창수

“담배 한 갑 주세요. **마코**(이전에 아버지의 담배 심부름을 자주 했음을 짐작하게 함. 근대 문학에서 싸구려 담배의 대명사로 자주 등장함.)요…… 아니, 저, 피죤요.”

아버지는 늘 마코만 태우신다. 구장 영감도 피죤을 태우는 것을 못 보았다. **‘주인 영감’은 참말 부자가 보다……**(당시에 ‘피죤’이 ‘마코’보다 비싼 담배였음을 알 수 있음.) 창수는 썩 지전을 내놓았다.

**주인 영감이 일 원 지폐를 그에게 주었던 것은, 혹은, 따로 잔돈이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간단한 셈이라도 소년이 칠 줄이나 어떤가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서술자가 작중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이 추측한 바를 드러냄.) **창수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서투르지 않다.**(시골에서 ‘영리하다’, ‘똑똑하다’를 별명처럼 들을 만큼 영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 마침내, 그는, 한 갑의 담배와, 아홉 개의 백통전을, 주인 영감 책상머리에 갖다 놓고, 제 판에는 무슨 크나큰 일이나 치른 듯이, 가만한 한숨조차 토하였던 것이나, 돈을 세어 보고 난 주인 영감이, **뜻밖에도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서, 가장 못마땅한 듯이 그의 얼굴을 면구스럽게 쳐다보며,**(창수가 한 심부름이 마음에 들지 않음.)

“너, **얼마 거슬러 온 거냐?**(계산이 틀린 것이 문제임을 유추할 수 있음.)”

한마디 말에, 그만 창수의 얼굴은 어처구니없이 붉어지고,

“구십, 구십 전이죠. 왜, 저…….”

변변하지 못하게 말소리조차 더듬어지는 것을, 제 자신, 어찌는 수 없이,

**“그래, 이게 구십 전야?”**(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것에 대한 불만이 담김.)

주인 영감이 거의 음성조차 높여 가지고, 그의 눈앞에 내보이는, 그 거슬러 온 돈을 다시 한번 세어 보아도, 역시 틀림없이 아홉 푼이기는 하였으나, 성미 급하게 주인 영감이 마침내 집어서 보여 주는 그중의 한 푼은, **들레는 거의 십 전짜리만이나 하였어도,**(크기 때문에 동전을 구분하지 못함.) 역시 틀림없는 오 전짜리 백통전이 분명하였다. 【( [ ] : 침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긴 문장으로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함.)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 가지고, **대체, 이제 어찌해야 좋을 것인지,**(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난처해함.)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경우)를 당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러한데, 이곳은, 더구나, 누구라 하나 아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이 아니냐? 소년은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 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 바보같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옳은 것인지,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도 당장 살 것 같았다.**(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해함.)

그러하였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부를 뒤적거리고 있던 흥 서방이, 비로소 말참견을 하여

“어어, 가게 한 번, 다시 갔다 오너라.”

일러 주었을 때,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하고 난 듯이, 가만히 숨 쉬고, 부리나케 다시 가게로 달음질쳐 갔던 것이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이 생긴 창수)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 가며 하는 말**(순진하고 어리숙한 창수의 모습)을, 반찬 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도 들어 주지 않았다.

**“애, 어림두 없는 소리는, 허지두 말어라.”**(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으로,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 아범을 보고, 자기가 이 장사를 열네 해를 하였어도, 【 이제까지, 단 **‘고린전**(보잘것없는 푼돈) 한 푼 셈을 틀려 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단순한 민 주사 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 [ ] : 창수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앞세움. → 인정이 메마른 세태.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창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한약국 주인, 반찬 가게 주인의 성격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복잡한 감정에 빠짐.)과…… 그러한 온갖 감정이 뒤범

벽을 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덜 받은 거스름돈을 주기를 바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대로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나,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채, 담에 시름 없이 몸을 기대서려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폭발쳐 올랐다.**(애써 참고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폭발함.)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어머니며, 아버지를 즐겼던 어제까지의 자기**(창수가 고집을 피워 아버지가 서울로 데려왔음을 알 수 있음.)가 자꾸 뉘우쳐졌다.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소**(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함.)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으로, 어린 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 담배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와 곤경에 처한 창수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오 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분주하게 약국에를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창수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여 살도록 하려는 단호한 태도) 아버지는 그저,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지도해 주시어,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주인 영감에게 당부한 말(간접 인용)) 그러한 것을 또 당부하였고, 창수에게는, **그저 매사를 주인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고,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바깥,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또 몸 성히 잘 있어야 한다**(창수에게 당부한 말(간접 인용). 어린 자식이 낯선 도시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염려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음.)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하였을 뿐으로, 서투른 숨씨로 후추를 **연질**(생후추를 약한 불에 말리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쁘게**(믿음성이 있게) 내려다본 뒤, ]([ ]: 아들에 대한 염려와 믿음(부성애))

“애.”

하고 은근히 아들에게,

“그저 한시 쉬지 말구,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타이르고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아들에게 마음 독하게 먹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겨우 입을 열어,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으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 찾을 수 없었다.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잣말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 갈 것인가 —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홀로 서울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 때문. **소년(창수)의 경험과 경험에 따른 심리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창수)은 서울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지녔다가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고 담배 심부름 사건으로 인해 난감함, 부끄러움, 원망, 뉘우침 등의 감정을 느끼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서울에 남겨지면서 외로움, 애탐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서울에 혼자 남겨진 창수

- 「천변 풍경」

지문 분석

**[ 머언(시적 허용. 거리감 강조. 시어에 대해 묻는 문제에 '시적 허용을 통해 시적 공간의 탈속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산 ]**([ ]: ■: 시선의 이동(원경→근경).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의 시선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머언 산'부터 '구름'까지의 시선 이동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청운사(靑雲寺)**(속세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

**[ 밝은 기와집 ]**([ ]: 속세의 화려함과 대조)

▶ 멀리서 바라본 청운사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계절의 변화(겨울→봄))

▶ 봄눈 녹는 자하산

**느릅나무**

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열두 굽이"는 청노루가 있는 자연 공간과 속세가 떨어져 있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새잎이 돋는 느릅나무

**청노루**(환상의 동물)

**맑은 눈**(자순한 속성)에

▶ 청노루의 맑은 눈

**[ 도는**

**구름 ]**([ ]: 한 단어로 시행 구성 → 형식미, 운율미.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줌.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명사로 시를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청노루의 눈에 비친 구름  
- 「청노루」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1)(2) 천변 풍경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암기용

#### 1. 작품 개관

갈래	장편 소설, <b>세태</b> 소설
성격	<b>관찰적</b> , <b>삽화적</b>
시점	<b>전지적 작가</b> 시점
배경	1930년대, 서울 <b>청계천</b> 주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계천</b> 변에 사는 도시 <b>서민</b>들의 <b>풍속</b>과 <b>세태</b>, 삶의 <b>애환</b>(전체)</li> <li>• <b>시골</b>에서 상경한 <b>소년</b>이 바라본 1930년대 <b>서울</b> 도심의 모습과 그에 대해 소년 이 받은 <b>인상</b>(교과서 수록 부분)</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특정 인물(<b>창수</b>)의 시점에서 <b>관찰</b>한 내용과 <b>내면</b>을 상세하게 서술함. (교과서 수록 부분)</li> <li>• <b>삽화</b>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연속적으로 드러냄.</li> <li>•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 작품의 <b>시대적 배경</b>을 드러냄.</li> </ul>

#### 2. 구성

「천변 풍경」은 소설의 일반적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고,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총 50절의 **일화**로 나누어 나열하는 **삽화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3. 아버지가 소년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

-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좇아, (...)
-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

↓

들르고 싶은 화신 상회도 지나쳐 청계천 변 한약국까지 곧바로 감.(아들 일이 끝나기까지 신중을 기함.)

↓

아들(창수)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성애**를 짐작할 수 있음.

#### 4. 카메라의 눈 기법

#####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등장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임.

↓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다채로운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5. 특징

세대 소설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재</b>의 거리와 지형·동명(洞名)·건물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사실들을 그대로 제시하여 <b>전통적</b>인 인습과 <b>근대적</b>인 문물이 혼합되어 있는 당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 줌.</li> <li>• <b>서울</b>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림.</li> </ul>
서술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b>관찰</b>한 <b>도시</b>의 풍경이나 시정의 상황을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을 활용하여 <b>등장인물의 시선</b>의 <b>이동</b>에 따라 다양하게 전달함.</li> <li>• 당대 일상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행위인 <b>고현학</b>이라는 창작 방법론에 의거한 소설로 평가받음.</li> </ul>

6. 이발소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발소 아이의 말	창수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 하, 하…… 너 석, 놀라기는…….”</li> <li>•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li> </ul>	다른 서울 아이들처럼 자신을 <b>비웃으며 놀린</b> <b>대</b> 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 심부름 가니?”</li> <li>•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li> </ul>	마음씨는 <b>착한</b> 아이라고 생각함.

7. ‘담배 심부름’의 서사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신</b> 있어 했던 일인데, <b>잘못</b>을 저질러 난처한 상황에 빠짐.</li> <li>• 어른들의 완고하고 <b>물질주의적</b> 태도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내몰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에 대한 창수의 <b>인식</b> 변화: 신비로움, <b>동경</b> → 물인정, <b>두려움</b></li> <li>• 창수의 <b>성격</b> 변화: <b>어리숙</b>하고 <b>순진</b>함 → (이후) <b>약삭빠르고 영악</b>해짐.</li> </ul>

8. 아버지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사를 주인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li> <li>•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li> <li>• 몸 성히 잘 있어야 한다.</li> <li>• 한시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li> </ul>
↓
일을 빨리 배워 혼자서도 <b>서울</b> 생활을 잘해 나가기 바라는 마음이 담김( <b>무정애</b> ).

9. 인물의 성격

소년(창수)	어리숙하고 <b>순진</b> 함. 스스로 <b>영리</b> 하다고 생각함.(이후 시골 아이의 <b>순진</b> 성을 탈피하고 <b>물질</b> 지향의 도시인으로 변모함.)
아버지	무심한 척하지만 아들의 <b>성공</b> 을 바라는 <b>무정애</b> 를 지니고 있음.
한약국 주인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b>단호</b> 하고 <b>완고</b> 한 편임.
반찬 가게 주인	자신의 실수를 <b>인정</b> 하지 않고, <b>물</b> 인정함.

10. 창수의 경험과 심리 변화

경험	심리
서울에 와 한약국에서 일하게 되어 고향을 떠남.	서울에 대한 <b>동경</b> 과 <b>기대</b>
↓	
서울에 도착하여 전차와 자동차, 건물들을 봄.	<b>놀라움</b> , 들뜸, 흥분
↓	
천변 풍경을 둘러봄.	<b>신기함</b> , 흥미로움, 재미, 기대
↓	
서울 아이들에게 <b>놀림</b> 을 당함.	<b>모욕감</b> , 겁이 남.
↓	
<b>담배</b> 심부름을 갔다가 잔돈을 잘못 받아 와 한약국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남.	<b>단감함</b> , <b>부끄러움</b> , <b>원망</b> , <b>뉘우침</b>
↓	
반찬 가게 주인으로부터 핀잔만 들음.	<b>비애</b> , 애원, <b>원망</b>
↓	
아무런 보람 없이 약국 앞까지 돌아옴.	울음 ( <b>속상함</b> , <b>두려움</b> )
↓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서울에 남겨짐.	<b>외로움</b> , <b>애타</b>

11. 학습 활동 「청노루」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b>관조적</b> , 서경적, <b>묘사적</b>
주제	<b>봄날</b> 의 정취와 <b>이상적</b> 세계의 추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선</b>의 이동(<b>원경</b> → <b>근경</b>)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li> <li>• 절제된 언어로 <b>여백</b>의 미와 리듬감을 살림.</li> <li>• <b>명사</b>로 종결하여 <b>여운</b>을 줌.</li> </ul>

TEST 1단계

1. 작품 개관

갈래	장편 소설, 세□ 소설
성격	관□적, 삽□적
시점	전□적 작□ 시점
배경	19□0년대, 서□ 청□천 주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천 변에 사는 도시 서□들의 풍□과 세□, 삶의 애□(전체)</li> <li>• 시□에서 상경한 소□이 바라본 19□0년대 서□ 도심의 모습과 그에 대해 소년이 받은 인□(교과서 수록 부분)</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특정 인물(창□)의 시점에서 관□한 내용과 내□을 상세하게 서술함.(교과서 수록 부분)</li> <li>• 쉽□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연속적으로 드러냄.</li> <li>•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 작품의 시□적 배□을 드러냄.</li> </ul>

2. 구성

「천변 풍경」은 소설의 일반적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고,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다□한 □의 모습을 총 50절의 일□로 나누어 나열하는 삽□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아버지가 소년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

•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좇아, (...)  
 •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



들르고 싶은 화신 상회도 지나쳐 청계천 변 한약국까지 곧바로 감.(아들 일이 끝나기까지 신중을 기함.)



아들(창수)이 □되기를 바라는 □성애를 짐작할 수 있음.

4. 카메라의 눈 기법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등□인□의 □에 비친 풍□을 시□의 이□에 따라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임.



창□의 □에 비친 천□의 다채로운 모습을 □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삶의 모습을 사□적으로 보여 줌.

5. 특징

<p>세대 소설적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의 거리와 지형·동명(洞名)·건물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사실들을 그대로 제시하여 전□적인 인습과 근□적인 문물이 혼합되어 있는 당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 줌.</li> <li>• 서□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림.</li> </ul>
<p>서술상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관□한 도□의 풍경이나 시정의 상황을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을 활용하여 등□인□의 시□의 이□에 따라 다양하게 전달함.</li> <li>• 당대 일상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행위인 고□학이라는 창작 방법론에 의거한 소설로 평가받음.</li> </ul>

6. 이발소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발소 아이의 말	창수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 하, 하…… 너 석, 놀라기는…….”</li> <li>•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li> </ul>	<p>다른 서울 아이들처럼 자신을 비□으며 놀□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 심부름 가니?”</li> <li>•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li> </ul>	<p>마음씨는 □한 아이라고 생각함.</p>

7. ‘담배 심부름’의 서사적 기능

- 자□ 있어 했던 일인데, 잘□을 저질러 난처한 상황에 빠짐.
- 어른들의 완고하고 물□주□적 태도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내몰림.

↓

- ‘서□’에 대한 창수의 인□ 변화: 신비로움, 동□ → 물인정, 두□움
- 창수의 성□ 변화: 어□숙하고 순□함 → (이후) 약삭빠르고 영□해짐.

8. 아버지의 당부

- 매사를 주인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
-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
- 몸 성히 잘 있어야 한다.
- 한시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

일을 빨리 배워 혼자서도 서□ 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김(부□애).

9. 인물의 성격

소년(창수)	어□숙하고 순□함. 스스로 영□하다고 생각함.(이후 시골 아이의 순□성을 탈피하고 물□ 지향의 도시인으로 변모함.)
아버지	무심한 척하지만 아들의 성□을 바라는 부□애를 지니고 있음.
한약국 주인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단□하고 완□한 편임.
반찬 가게 주인	자신의 실수를 인□하지 않고, 물□정함.

10. 창수의 경험과 심리 변화

경험	심리
서울에 와 한약국에서 일하게 되어 고향을 떠남.	서울에 대한 동□과 기□
↓	
서울에 도착하여 전차와 자동차, 건물들을 봄.	놀□움, 들뜸, 흥분
↓	
천변 풍경을 둘러봄.	신□함, 흥미로움, 재미, 기대
↓	
서울 아이들에게 놀□을 당함.	모□감, 겁이 남.
↓	
담□ 심□름을 갔다가 잔돈을 잘못 받아 와 한약국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남.	난□함, 부□러움, 원□, 뉘□침
↓	
반찬 가게 주인으로부터 핀잔만 들음.	비□, 애원, 원□
↓	
아무런 보람 없이 약국 앞까지 돌아옴.	울음(속□함, 두□움)
↓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서울에 남겨 짐.	외□움, 애□

11. 학습 활동 「청노루」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적, 서경적, 묘□적
주제	□날의 정취와 이□적 세계의 추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이동(□경 → □경)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li> <li>• 절제된 언어로 여□의 미와 리듬감을 살림.</li> <li>• □사로 종결하여 여□을 줌.</li> </ul>

TEST 2단계

1. 작품 개관

갈래	장편 소설, [ㅅ] [ㅌ] 소설
성격	[ㄱ] [ㅊ] 적, [ㅅ] [ㅎ] 적
시점	[ㅈ] [ㅈ] [ㅈ] [ㅈ] [ㄱ] 시점
배경	1930년대, [ㅅ] [ㅇ] [ㅊ] [ㄱ] [ㅊ] 주변
주제	• [ㅊ] [ㄱ] [ㅊ] 변에 사는 도시 [ㅅ] [ㅇ] 들의 [표] [ㅅ] 과 [ㅅ] [ㅌ], 삶의 [ㅇ] [ㅎ] (전체)
	• [ㅅ] [ㄱ] 에서 상경한 [ㅅ] [ㄴ] 이 바라본 1930년대 [ㅅ] [ㅇ] 도심의 모습과 그에 대해 소년이 받은 [ㅇ] [ㅅ] (교과서 수록 부분)
특징	• 주로 특정 인물([ㅊ] [ㅅ])의 시점에서 [ㄱ] [ㅊ] 한 내용과 [ㄴ] [ㅇ] 을 상세하게 서술함.(교과서 수록 부분) • [ㅅ] [표] 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연속적으로 드러냄. •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 작품의 [ㅅ] [ㅇ] 적 [ㅂ] [ㄱ] 을 드러냄.

2. 구성

「천변 풍경」은 소설의 일반적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고,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ㄷ] [ㅇ] 한 [ㅅ] 의 모습을 총 50절의 [ㅇ] [ㅎ] 로 나누어 나열하는 [ㅅ] [ㅎ] 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아버지가 소년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

•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좇아, (...)  
•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



들리고 싶은 화신 상회도 지나쳐 청계천 변 한약국까지 곧바로 감.(아들 일이 끝나기까지 신중을 기함.)



아들(창수)이 [ㅈ] [ㄷ] [ㄱ] 를 바라는 [ㅂ] [ㅅ] [ㅇ] 를 짐작할 수 있음.

4. 카메라의 눈 기법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ㄷ] [ㅈ] [ㅇ] [ㅇ] 의 [ㄴ] 에 비친 [표] [ㄱ] 을 [ㅅ] [ㅅ] 의 [ㅇ] [ㄷ] 에 따라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임.



[ㅊ] [ㅅ] 의 [ㄴ] 에 비친 [ㅊ] [ㅂ] 의 다채로운 모습을 [ㄱ] [ㄱ] 적으로 묘사하면서 삶의 모습을 [ㅅ] [ㅅ] 적으로 보여 줌.

5. 특징

세태 소설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 ]의 거리와 지형·동명(洞名)·건물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사실들을 그대로 제시하여 [ ] [ ]적인 인습과 [ ] [ ]적인 문물이 혼합되어 있는 당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 줌.</li> <li>• [ ] [ ]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림.</li> </ul>
서술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 ] [ ]한 [ ] [ ]의 풍경이나 시정의 상황을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을 활용하여 [ ] [ ] [ ] [ ]의 [ ] [ ]의 [ ] [ ]에 따라 다양하게 전달함.</li> <li>• 당대 일상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행위인 [ ] [ ] [ ]이라는 창작 방법론에 의거한 소설로 평가받음.</li> </ul>

6. 이발소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발소 아이의 말	창수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 하, 하…… 너 석, 놀라기는…….”</li> <li>•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li> </ul>	다른 서울 아이들처럼 자신을 [ ] [ ] [ ]며 [ ] [ ] [ ]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 심부름 가니?”</li> <li>•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li> </ul>	마음씨는 [ ] [ ] 아이라고 생각함.

7. ‘담배 심부름’의 서사적 기능

- [ ] [ ] 있어 했던 일인데, [ ] [ ]을 저질러 난처한 상황에 빠짐.
- 어른들의 완고하고 [ ] [ ] [ ] [ ]적 태도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내몰림.



- ‘[ ] [ ]’에 대한 창수의 [ ] [ ] 변화: 신비로움, [ ] [ ] → 몰인정, [ ] [ ] [ ]
- 창수의 [ ] [ ] 변화: [ ] [ ] [ ]하고 [ ] [ ]함 → (이후) 약삭빠르고 [ ] [ ]해짐.

8. 아버지의 당부

- 매사를 주인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
- 바깥 정신을 차려야 한다.
- 몸 성히 잘 있어야 한다.
- 한시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일을 빨리 배워 혼자서도 [ ] [ ] 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김([ ] [ ] [ ]).

9. 인물의 성격

소년(창수)	[ ] [ ] [ ]하고 [ ] [ ]함. 스스로 [ ] [ ]하다고 생각함.(이후 시골 아이의 [ ] [ ] [ ]을 탈피하고 [ ] [ ] 지향의 도시인으로 변모함.)
아버지	무심한 척하지만 아들의 [ ] [ ]을 바라는 [ ] [ ] [ ]를 지니고 있음.
한약국 주인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 ] [ ]하고 [ ] [ ]한 편임.
반찬 가게 주인	자신의 실수를 [ ] [ ]하지 않고, [ ] [ ] [ ]함.

10. 창수의 경험과 심리 변화

경험	심리
서울에 와 한약국에서 일하게 되어 고향을 떠남.	서울에 대한 [ㄷ ㄱ] 과 [ㄱ ㄷ]
↓	
서울에 도착하여 전차와 자동차, 건물들을 봄.	[ㄴ ㄹ ㅅ], 들뜸, 흥분
↓	
천변 풍경을 둘러봄.	[ㅅ ㄱ ㅎ], 흥미로움, 재미, 기대
↓	
서울 아이들에게 [ㄴ ㄹ] 을 당함.	[ㄹ ㅅ ㄱ], 겁이 남.
↓	
[ㄷ ㅅ] [ㅅ ㅅ ㄹ] 을 갔다가 잔돈을 잘못 받아 와 한약국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남.	[ㄴ ㄱ ㅎ], [ㅅ ㄱ ㄹ], [ㄹ ㅅ], [ㅅ ㄹ], [ㄴ ㅅ ㅅ]
↓	
반찬 가게 주인으로부터 핀잔만 들음.	[ㅅ ㅅ], 애원, [ㅅ ㄹ]
↓	
아무런 보람 없이 약국 앞까지 돌아옴.	울음 ([ㅅ ㅅ ㅎ], [ㄷ ㄹ ㅅ])
↓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서울에 남겨짐.	[ㅅ ㄹ ㅅ], [ㅅ ㅅ]

11. 학습 활동 「청노루」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ㄱ ㅅ] 적, 서경적, [ㅅ ㅅ] 적
주제	[ㅅ ㄴ] 의 정취와 [ㅅ ㅅ] 적 세계의 추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ㅅ ㅅ] 의 이동 ([ㅅ ㄱ] → [ㄱ ㄱ])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li> <li>• 절제된 언어로 [ㅅ ㅅ] 의 미와 리듬감을 살림.</li> <li>• [ㅅ ㅅ] 로 종결하여 [ㅅ ㅅ] 을 줌.</li> </ul>

O / X 문제

【1~9】 「천변 풍경」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소설은 삽화식 구성 방식을 취한 소설로, 제3절의 주인공은 창수이다. .... (O / X)

2. 썸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대상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호흡을 끊어 읽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O / X)

3. 아버지는 자식의 일에 신중을 기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성애가 드러난다. .... (O / X)

4. 소년은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에 심리적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 (O / X)

5. 썸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긴 문장으로 인물의 심란하고 불안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O / X)

1. O 2. O 3. O 4. X 5. O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1)(2) 천변 풍경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 지문

#### 제3절 시골서 온 아이

소년은,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해 마지않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다.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편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골 '가평'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 앞 자동차부에서 차를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한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밧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어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 잃어버릴 뻔하다가 찾는다고, 찾아내고 한 소년은, 종로 네거리 광대한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제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화신상……, 화신상이란 데야.”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는 겨우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좇아,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서도,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 상회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니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으나, 그는,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사무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자기의 모든 거조가, 그렇게도 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

청계천 변, 한약국 주인 방에, 가평서 올라온 부자는 주인 영감과 마주 대하여 앉았다.

“애가 자제요니까?”

“네…… 애, 인사 여쭙라.”

[중략 부분 줄거리] 창수는 나이를 묻는 주인 영감의 물음에 대신 답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느낀다.

“문간에 나가 구경이라두 허렴. 어디 먼 데는 가지 말구…….”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무슨 은근한 이야기가 있으려는지, 새로이들 께련을 피워 물었다.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아무리 시골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에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우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쉼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

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종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튕굴고, 그러는 각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도,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옳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짝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걸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는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번번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도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년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기에 대하여, 눈곱만 한 자신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룻밤이라 같이 묵어 주는 일 없이, 그대로 무자비하게도 자기의 불일만을 보러, 영등포라나 어디라나로 떠나 버렸으므로, 어린 창수는, 대체, 혼자서, 이제, 어찌하여야 좋을지, 끝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야, 아버지는, 내일 아침 가평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한약국에를 들르마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까짓 것이 그의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 얼마 있다, 주인 영감이 ‘피죤’ 한 갑 사오라고 한 장의 일 원 지폐를 내어 주었을 때, 담배 가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모르는 창수는 고만한 심부름에도 애가 쓰였다.

돈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에다 대고, 주인 영감은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하였다.

“너, 담배 파는 데, 아니?”

“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얼굴을 붉히며, 천번에 나와, 대체, 어디로 발길을 향해야 옳을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을 때,

“너, 심부름 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그저 앉아 있는, 아까 그 아이가 말을 또 걸어, 그래,

“응”

하고 대답하니까,

“뭐.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씨는 착한 아이인 듯싶어,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

일러 주는 그 말이, 이 경우의 창수에게는 썩이나 고마웠다.

창수는 한달음에 다리 모퉁이 반찬 가게로 뛰어갔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마코요…… 아니, 저, 피죤요.”

아버지는 늘 마코만 태우신다. 구장 영감도 피죤을 태우는 것을 못 보았다. ‘원 영감’은 참말 부잔가 보  
다…… 창수는 썩 지전을 내놓았다.

주인 영감이 일 원 지폐를 그에게 주었던 것은, 혹은, 따로 잔돈이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간단한 셈이라도  
소년이 칠 줄 아나 어떤가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창수는, 그러나, 그러한 것  
에 서투르지 않다.

마침내, 그는, 한 갑의 담배와, 아홉 개의 백통전을, 주인 영감 책상머리에 갖다 놓고, 제 댐에는 무슨 크나  
큰 일이나 치른 듯이, 가만한 한숨조차 토하였던 것이나, 돈을 세어 보고 난 주인 영감이, 뜻밖에도 눈살을 잔  
뜩 찌푸리고서, 가장 못마땅한 듯이 그의 얼굴을 면구스럽게 쳐다보며,

“너, 얼마 거슬러 온 거냐?”

한마디 말에, 그만 창수의 얼굴은 어처구니없이 붉어지고,

“구십, 구십 전이죠. 왜, 저…….”

변변하지 못하게 말소리조차 더듬어지는 것을, 제 자신, 어찌는 수 없이,

“그래, 이게 구십 전야?”

주인 영감이 거의 음성조차 높여 가지고, 그의 눈앞에 내보이는, 그 거슬러 온 돈을 다시 한번 세어 보아도,  
역시 틀림없이 아홉 푼이기는 하였으나, 성미 급하게 주인 영감이 마침내 집어서 보여 주는 그중의 한 푼은,  
둘레는 거의 십 전짜리만이나 하였어도, 역시 틀림없는 오 전짜리 백통전이 분명하였다.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 가지고, 대체, 이제 어찌해야 좋을 것인지,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당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러한데, 이곳은, 더구나, 누구라 하나  
아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이 아니냐? 소년은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 전짜리 백통전을 내려

다보며, 얼마 동안 바보같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옳은 것인지,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도 당장 살 것 같았다.

그러하였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부를 뒤적거리고 있던 흥 서방이, 비로소 말참견을 하여

“어여, 가게 한 번, 다시 갔다 오너라.”

일러 주었을 때,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하고 난 듯이, 가만히 숨 쉬고, 부리나케 다시 가게로 달음질쳐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 가며 하는 말을, 반찬 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도 들어 주지 않았다.

“애, 어림두 없는 소리는, 허지두 말어라.”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으로,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 아범을 보고, 자기가 이 장사를 열네 해를 하였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한 훈 셈을 틀려 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단순한 민주사 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러한 온갖 감정이 뒤범벅을 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대로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나,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채, 담에 시름 없이 몸을 기대 서려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폭발쳐 올랐다.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어머니며, 아버지를 졸랐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 아버지가 불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으로, 어린 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오 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분주하게 약국에를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지도해 주시어,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고, 그러한 것을 또 당부하였고, 창수에게는, 그저 매사를 주인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고,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또 몸 성히 잘 있어야 한다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하였을 뿐으로, 서투른 숨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쁘게 내려다본 뒤,

“애.”

하고 은근히 아들에게,

“그저 한시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타이르고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겨우 입을 열어,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으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 찾을 수 없었다.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잣말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 갈 것인가 —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천변 풍경」

핵심 정리



지문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낮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청노루」

핵심 정리

서지정보

저자 김아름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250-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5.10.20

가격 3,000원

값 3000 원



ISBN 979-11-377-9250-0 (PDF)